

청소년 불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화책은?



동대부여고 학생들이 '환경생태 체험학습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반야심경> 독송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화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솝우화요!” “아기돼지 삼형제요!”
 동대부여고 권진영 교법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답을 한다. 정답을 맞히면 엽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어렵게도 이 질문은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자타카>예요.”
 권 교법사가 답을 이야기 해줘도 학생들은 잘 모르는 눈치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도덕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권진영 교법사는 ‘독수리와 비둘기’ 이야기를 들려줬다.
 독수리로부터 비둘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다는 왕 이야기에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운다. 먹이감을 원하는 독수리에 비둘기 대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주는 왕의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12월 18일 오후 4시,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도선사(주지 혜자)에 동대부여고 1~3학년 학생 40여 명이 모였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동대부여고(교장 김용선)가 여성과학인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준비한 ‘환경생태 체험학습 템플스테이’이다.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산행을 하며 산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환경생태 감의를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배

대장경은 믿음과 뉘음

어린이·청소년은 ‘자타카’

‘자타카’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어난 자’라는 뜻이다. 그것이 점차 ‘이 생애 태어나기까지의 전생이야기’로 바뀌었다가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라는 고유의 뜻을 갖게 됐다.
 권진영 교법사는 학생들에게 “이 북한산에는 들쥐도 있어요. 들쥐에 기생하는 벌레도 있고 그 속에 사는 미생물도 있어요. 북한산의 생태계는 참 다양합니다. <자타카>의 ‘독수리와 비둘기’ 이야기처럼 북한산 생명들의 무계는 내 생명의 무계와 같습니다. 이것만 알면 자비무적(慈悲無敵)이 저절로 되고 방생도량(放生道場)의 뜻을 아는 겁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법사는 “수행하는 스님들의 일상생활은 생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스님들은 팔팔 끓는 물에 걸레를 빨고 그 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식재로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미생물들이 죽을 것까지 염려해서 생활합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비심이 불교생태환경의 근본임을 깨달았다.
 불교학살회 총무 박소연(18)양은 “<자타카>를 들으며 생명존중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특히 미생물까지 생각해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양은 “최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게 한 ‘고양이 차차’ 사건이 생각났다. 그 사담이 부처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했다.

(자타카)는 출가수행자와 재가법사들의 설법에 널리 인용된다. 아라한이며 스리랑카에 법을 전한 마하 마힌다(Maha Mahinda)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설명할 때 <자타카>를 예로 들었다.
 부처님도 일부를 인용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타카>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로 전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또한 <자타카> 이야기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들이 배다 문헌에 등장했다. 이솝우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 신약 성경도 <자타카>에서 기원했다. 페르시아에도 인도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 이야기들은 영국에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로, 이탈리아에 서는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으로 옮겨졌다.
 <자타카>의 이야기들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됐다. 자타카의 일부인 팔짜탄트라(Pañcatantra)는 경제와 법을 가르치는 데 사용됐고, 까타사리트 사가라(Katha Sarit Sagara)는 지식을 개발하거나 즐기게 하기 위해 사용됐다.
 <자타카>에 실린 이야기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실례로 쓸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547가지 부처님 전생담... 쉬운 이야기 이솝우화, 그리스 신화, 신약성경의 기원

이솝우화, 그리스 신화, 신약성경의 기원
 <자타카>의 기원은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이치다. 인과를 믿는 것은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자타카>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에도 손색이 없다.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면서 불교의 중요한 교리가 모두 담겼다. <자타카>는 대중이 쉽고 깊이 있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 불교를 접하는 이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담이 없다.
 모든 불교국가에서 <자타카>는 인성 개발의 중요한 근원으로 여기고 있다.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백조에게 몸을 의지해 하늘을 날던 거북이가 말을 하느라 입에 문 나뭇가지를 놓쳐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통해 말 많은 임금에게 교훈을 줬다는 <자타카>의 ‘말 많은 임금님’. 사진은 거북이를 들고 나는 백조의 모습을 표현한 부조물이다.

“쉬운 불교 설화로 내 안의 보물 찾게 해야”

동대부여고 권진영 교법사

“불교공부는 분명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문교사로도 활동 중인 권진영 동대부여고 교법사(사진)는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에 불교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16년간 교법사 활동을 해온 그는 부처님의 설법원리를 철저히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는 대가설법(對機說法)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권 교법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불교를 전해주려고 노력한다.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욕구가 있다. 그 욕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설법을 하는 것이 대가설법이다”라며 “다양한 체험과 미지의 세계를 눈뜨려 하는 욕구,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 나누고자 하는 욕구 등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욕구를 학생들도 갖고 있다. 그들이 될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경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자타카> <아함경> <백유경> 등은 굉장히 쉬우면서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권진영 교법사는 “<자타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법은 처



음에 불교를 접했을 때 겪는 교리의 난해함과 한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며 “경전을 활용해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불교가 현대문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진영 교법사는 쉬운 법문에서 어려운 법문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조기경전서로 법문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등록번호 206-82-65359]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표 회장 **회 임**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해 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
 수석이사 **해 성** (대한불교교화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 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사 **항 운** (세계불교법사총 총무원장) **해 월**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중 식** (법화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운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화신종 총무원장)
준 석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해 범**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학 랑**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마주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승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감사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고문번호사 김진래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팩스 02)2201-1163

권선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에서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 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복지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사·암에서 버려지는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 자재 수거와 후원금을 받습니다.
 부디 고승복지원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불자님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수거품목 : 폐초, 파불,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 [후원금 예금주]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농협) 1124-01-138620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택배업체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복지지원단에서 지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227번지
 전화 : ☎ 031)764-3511, 070-4246-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여 드립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大韓佛敎高僧聯合會 복지지원단
 총무원장 대승사 광명 합장

후원단체 : 대한불교신인중, 국제불교조계종, 불교미술사회교육원, 해동불교금강조계종, 대한민국미술연합, 자비실천운동본부, 용화불교교단, 천도불교사, 백제무예연구원, 불지가수회, 호국연예인예술단, 사천왕경호대, 서울불교방송, 한·중 불교문화원